

서양 중세의 남장여성(男裝女性)

- 일탈? 혹은 트랜스젠더? -

차용구(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서론

‘남장(男裝)’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가 남자차림으로 변장하는 일’이다. 서양 중세의 대표적인 남장 사례로 흔히 잔 다르크가 언급되곤 한다. 그녀가 화형대에서 섰을 때, 죄목은 신성모독, 우상 및 악마숭배, 배교 및 이단, 유혈선동, 남장 등이었다.¹⁾ 그러나 중세에는 잔 다르크 외에도 남장 여인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며, 중세인들은 그 존재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의상도착증(Transvestism)으로 정의하고, 오랫동안 그 원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의사이자 성연구자였던 허르시펠트(Magnus Hirschfeld)²⁾는 변복(變服)을 성적 욕망(Erotische Verkleidungstrieb)의 결과로 진단한 바 있다. 이후 영국의 선구적인 성심리학자 엘리스(Haverlock Ellis)는 그의 대표작 『성심리학 연구』³⁾에서 ‘에오니즘(Eonism)’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의상도착 증후군이 타성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후의 저작들도 의상도착증을 대부분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그나마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장을 즐기는 ‘여장남성’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매춘의 역사』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성과학자 벌로(Vern L. Bullough)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동향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 의상도착을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였던 그는 사회인류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중세의 ‘남장여성’을 조사하였다.⁴⁾ 이후 90년대에 와서 호치키스(Vallerie R. Hotchkiss)가 서양 중세 여성의 복장전환(Cross Dressing)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다.⁵⁾

가톨릭의 ‘정통’ 교회사가들은 남장변복을 한 이집트 사막의 여성 은수자들의 삶은 초대 교회가 “남녀 수도승들 행동의 평등성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변장한 여자 수도승은 저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불평등의 폐지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⁶⁾고 평가한다.

1)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V.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London/New York 1996), 49-68 참조.

2) Magnus Hirschfeld, *Die Transvestiten: Eine Untersuchung über den erotischen Verkleidungstrieb mit umfangreichen casuistischen und historischen Material* (Berlin 1910).

3) Haverlock Ellis,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 1, 2* (New York 1936; 재판). 엘리스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구자현·황상익, 「엘리스(Haverlock Ellis)의 성심리학 연구」, 『醫學史』 8(1996), 21-31쪽 참조.

4) Vern L. Bullough, ‘Transvestites in the Middle 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1974), 1381-1394.

5)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호치키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Hildegund von Schönau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녀의 실존 가능성에 치중한 나머지 그녀가 ‘기억’되고 있는 사료의 한계와 문제점을 간과하였다. 독일어권에서는 리버스(A. Liebers)가 자신의 저서(“*Eine Frau war dieser Mann*” *Die Geschichte der Hildegund von Schönau* (eFeF-Verlag 1989))에서 힐데군트 일화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석사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심층적 분석이 결여되었다. 리버스 역시 힐데군트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세의 남장여성 사례를 일탈과 트랜스젠더라는 두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아직도 의미형성 중에 있는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양성성의 사람’, ‘출생시 성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출생시 성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전통적 성별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 ‘육체적 성정체성과 정신적 성정체성이 반대되는 사람’,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통해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⁷⁾ 그러나 자신에게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별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비동조성(non-conformity)을 트랜스젠더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데 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분법적이고 결정론적인 성별 구분을 거부하는 트랜스젠더의 범주 속에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처럼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에도, 다른 성별을 주장하고 그렇게 인지되기를 바라는 사례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성별을 가로지르는 행위’는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성과는 다른 성별 수행을 통해서 천부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에 도전한다. 또한 남녀성(별) 범주 자체를 초월하는, 어떠한 성별도 만들지 않으며 성별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경우도 트랜스젠더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성에 따라 남녀로 양분되며,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규범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다는 결정론적 성관념은 최근의 생물학이나 의학적 연구 성과와도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서 올친(Allchin)은 “한 몸에 한 성이라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유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다.⁸⁾

본론

I. 중세 초기의 남장여성

중세인들에게도 복장 전환이 낯선 현상만은 아니다. 중세 말 도시 축제와 카니발에서 등장인물들이 남녀의 복장을 바꾸어 입곤 하였기 때문이다.⁹⁾ 비록 신명기¹⁰⁾의 율법이 남녀의 옷 바꿔 입기를 금하고 있지만, 고대세계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¹¹⁾ 의복교환 착용과 관련

6) Jesús Alvarez Gómez, 『기원에서 베네딕토회까지. 수도 생활 역사 I』 (성바오로 2001), 158 쪽. “사막의 수녀승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같은 책, 157-161 쪽 참조.

7) 안옥선,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48(2007), 44 쪽 참조.

8) Douglas Allchin, “Male, Female and/or?: How Does Nature Define the Sexes?” The American Biology Teacher, 68/6(2006), 351 참조.

9) Vern L. Bullough, ‘On Being a Male in the Middle Ages’, Clare A. Lees/Thelma S. Fenster (ed.), *Medieval Masculini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31-45, 여기서는 37-38; 중세 기사 문학에 등장하는 ‘여장남성’에 대해서는 Ad Putter, ‘Transvestite Knights in Medieval Life and Literature’, Jeffrey Jerome Cohen & Bonnie Wheeler(ed.), *Becoming Male in the Middle Ages* (Garland Publishing 2000) 279-302.

10) 22.5: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에 대해서는 최창모, 「남녀 의복 교환착용 금기 (신명기 22 : 5)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1(2000), 251-263쪽 참조.

11) 고대 세계의 이성 복장 착용에 대해서는 사브리나 P. 라멧,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 젠더역전과 젠더문화』 (당대 2001), 17-18쪽 참조. 특히 중세의 남장 여기사(female knight)와 관련해서 안상준, 「중세 유럽 사회에서 여성의 전쟁참여」, 『서양중세사연구』 18(2006), 33- 63쪽 참조.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Vita S. Hildegundis Virginis」의 저자가 “힐데군트가 유럽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기사단에 합류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냈다”(784)고 기록한 점이다.

된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4세기 이후부터 ‘남장(男裝) 성녀’를 주제로 한 작품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의 옷을 입고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사막에서 은수사로 생활했던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남장행위에 대한 기록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수도 생활 시작 동기, 둘째 남장을 하고 일어나는 사건들, 셋째 사후 성 정체성의 밝혀짐이 그것이다.¹²⁾

로마의 순교록에 기록되어 있는 에우게니아(Eugenia)는 남장을 하고 인근의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수도원장까지 되었으나, ‘그’가 병을 간호하던 여인에 의해 성 추행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도원을 떠나야만 했다. 이 후 그녀는 로마로 갔고, 그 곳에서 순교하였다. 5세기의 마리나(Marina) 성녀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도 에우게니아와 유사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홀아비 생활을 청산하고 비티니아의 수도원으로 가면서, 원장에게 자신의 아이가 마리노라는 남자 아이이니 수도원에서 살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락을 받아 내었다. 이후 남자 수도자로 변장하여 생활하던 마리나는 인근 여인숙 주인의 딸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내하고, 수도원 문밖에서 결식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녀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죽은 뒤에야 밝혀졌다.

테오도라(Theodora) 성녀의 경험도 이와 비슷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독의 아내였던 그녀는 집을 도망쳐 나와 수도원으로 피신하였다. 그 곳에서 남자로 변장하고 수도자들과 생활하던 중,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한 소녀의 모함으로 수도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녀는 오히려 소녀의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 이후 이 아이가 같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 이들 외에도 펠라지아(Pelagia)와 테클라(Tecla) 성녀를 비롯하여 초대 교회의 많은 여성들이 남장을 하였던 사례들이 발견된다.¹³⁾

“남자 같은 여자들”¹⁴⁾이었던 남장여성 수도사의 일화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들은 사막에서 “금욕의 투쟁을 하는”¹⁵⁾ 여자 독수자들의 경우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아마 여자로서 혼자 독수 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 특히 불안정한 위험”을 남장변복의 이유로 들고 있다. 후대 교회역사가들은 동시에 이집트 사막의 첫 수도승 생활이 “남녀 수도승들 행동의 평등성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변장한 여자 수도승은 저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간불평등의 폐지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¹⁶⁾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에우게니아, 마리나, 테오도라, 펠라지아, 테클라 등은 사막의 독수자들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수도원장으로서 책무를 맡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남성으로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성공적인 남장변복 행위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외적 강요보다는 스

12) Jesús Alvarez Gómez, 『기원에서 베네딕토회까지. 수도 생활 역사 I』 (성바오로 2001), 159 쪽.

13) 이에 대해서는 J. Anson, ‘The Female Transvestite in Early Monasticism: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 Motif’, *Viator* 5(1974), 1-32; Bullough, ‘On Being a Male in the Middle Ages’, 34; Vern L. Bullough, ‘Transvestites in the Middle Ages’, 1381-1394; Hotchkiss(*Clothes make the man*, 35)는 지금까지 밝혀진 남장 성녀의 수가 40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장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였으나 죽은 다음에서 여성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14) Hist. Laus., 41.

15) Hist. Laus., 41.

16) Jesús Alvarez Gómez, 기원에서 베네딕토회까지, 158 쪽. “사막의 수녀승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같은 책, 157-161 쪽 참조.

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남자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단순히 ‘남장여성’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다. 마리나의 경우, 누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명하려들기 보다 죄를 뒤집어쓰고 수도원에서 추방되었다. 스스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던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필요가 있었을까?

중세 초기의 남장여성 수사들의 경우, 일부 이지만 자신의 천부적인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의 남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별 이분성과 고정성을 거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이분법적 성별구조가 자연적 질서로 수용되고 있던 사회에서 자신에게 억압적으로 부과된 ‘역할’, ‘규범’, ‘여성다움’에 배치되는 성(별)관념을 표방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이들은 변종적 염색체 혹은 신체와 염색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적으로 1차적 성징(性徵)의 모호성 때문에 어느 한쪽 성에만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의학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testosterone)이 과도한 분비로 남성적 성징이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된 남장여성 수도사들 대부분이 강요된 정략결혼, 간통(테오도라), 매춘(펠라기아)으로 인해 한 많은 현세에 등 돌리고 사막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경험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 본다.

혹은 이들은 자신의 자연적 성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고정적인 성관념과 실천규범에 도전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남성적으로 입어야 하고, 여자는 여성적으로 입어야 한다는 성별규범이나,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성별규범을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별(Gender)간 불일치를 인식하면서 성별규정에 도전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특이하게도 교회는 여장남성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장을 하고 구원의 길을 택했던 여성들은 ‘성녀’로 추앙되었지만, 남성이 여장하는 일은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¹⁷⁾ 남성우월적인 중세 사회에서 여성 폄하적 시각은 복장 전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⁸⁾

중세 성직자들은 사회 구성원에게 고유한 ‘성역할’을 역설하면서, 현대적 용어로 설명하면 ‘젠더체제’를 강화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교회는 이른바 ‘이원적 양성 젠더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젠더명령 속에는 ‘완벽한’ 남성성, ‘부족한’ 여성성이라는 논리가 함유되어 있다. 성 히에로니무스가 “세속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더욱 봉헌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며, 스스로 ‘남성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이 더욱 완벽한 존재인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염원뿐이다”¹⁹⁾라고 했을 때, 여성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상징적’ 젠더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신자의 이름은 여성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완전한 존재인 남성으로 거듭날 것이다”²⁰⁾는 암브로시우스의 유사한 언급도 역시 ‘나약한 여성성’이라는 관념이 근저에 깔려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중세 교회는 여성의

17) B. Spreitzer, ‘Geschlecht als Maskerade. Weblicher Transvestismus im Mittelalter’, Wernfried Hofmeister/Bernd Steinbauer (ed.), *Durch aubenteuer muess man wagen vil* (Innsbruck 1995), 447-487.

18) 중세 교회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차용구, 「중세 교회의 여성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재검토」, 1-25쪽.

19) PL 26, 567: *Nec non et juxta litteram, quamdiu mulier partui servit et liberis, hanc ad virum differentiam, quam corpus ad animam. Sin autem Christo magis voluerit servire quam saeculo, mulier esse cessabit, et dicetur vir, quia omnes in perfectum virum cupimus occurrere.*

20) PL 15, 1938: *Quae non credit, mulier est, et adhuc corporei sexus appellationes signatur: nam quae credit, occurrit in virum perfectum.*

젠더 전환 가능성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II. Hildegund von Schönau의 사례

II-1 사료와 전승(傳承)

힐데군트와 관련된 사료는 현재까지 모두 5 종류로 알려져 있다. 가장 오래된 자료는 시토 교단의 수도사 엔겔하르트(Engelhard)가 기록한 것으로, 그녀가 사망한 해인 118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²¹⁾ 엔겔하르트는 “소녀와 같은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어느 목격자가 그녀의 임종 순간과 장례식에서 듣고 본 것을”²²⁾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최소화하고 주인공의 진술에 근거하여 글을 전개하고자 했다.²³⁾ ‘요셉(Joseph)’이라는 가명으로 쇠나우(Schönau) 수도원에 청원자로 입소한 ‘소녀’는 이후 중병을 앓고 임종 직전에 수도원장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이 삶을 회고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²⁴⁾ 짧지만 다사다난했던 삶을 회고한 ‘요셉’이 숨을 거두자 시신을 깨끗이 하는 염을 하는 도중에 (*nudatur ad lavandum*) 그가 남장을 한 ‘그리스도의 처녀(*virgo Christi*)’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 기이한 사건이 있는 뒤, 수도원장은 ‘소녀’에 대해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²⁵⁾

‘요셉’-힐데군트의 이야기는 이후 다른 작가의 관심을 끌었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레겐스부르크 인근에 위치한 시토 수도회의 빈트베르크(Windberg)에서 한 익명의 수사가 ‘신의 처녀(*Clara Dei*)’를 공경하는 153행의 시를 지었다.²⁶⁾ 엔겔하르트 판본과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빈트베르크의 수사는 전임자의 기록을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람이 작성한 글에서는 ‘요셉’의 실명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1200년경의 세 번째 전기 작가는 그의 본명이 힐데군트라고 밝혔다(*Hildegundis vocaretur*).²⁷⁾ 그러나 앞의 두 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요셉 형제(*frater Joseph*)’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세 번째 사료도 남장의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침묵한다. 단지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었다거나, 혹은 그녀가 겪은 험난한 모험에 비추어 보아, 수도원 입회 전부터 남자 행세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²⁸⁾

21) 엔겔하르트의 기록은 J. Schwarzer, ‘Vitae und Miracula aus Kloster Ebrach’, *Neues Archiv der Gesellschaft für ältere deutsche Geschichtskunde* VI.(1881), 515-523에 편찬되어 있다. Engelhard von Langheim에 대해서는 Martha G. Newman, ‘Real Men and Imaginary Women: Engelhard of Langheim Considers a Woman in Disguise’, *Speculum* 78-4 (October 2003), 1184-1213 참조.

22) Vitae und Miracula, 520: *Huius relationis testem habemus in domo, qui in obitu et exequiis puelle presens fuit, referens nobis quod audivit ipse et vidit.*

23) 예를 들면 Vitae und Miracula, 517: *referam vobis, quid miraculorum fecit Deus in me. Indigena sum, inquit, terre hujus natus in territorio Coloniensi;* 518: *in Rhetia dum transirem...furem offendi. Hic junxit se mihi, sciscitans, quonam vellem?*

24) Vitae und Miracula, 517: *Et infirmatus est Joseph usque ad mortem. Vicinus morti priorem vocat, confitetur ei, omnia sua preter sexum indicat.*

25) Vitae und Miracula, 520: *Ceterum abbas ille rei novitate attonitus vitam puelle sciscitare plenius voluit, ipsam ab inclusa investigare perrexit.*

26) 편찬본은 W. Wattenbach, ‘Vita Hildegundis metrica’, *Neues Archiv* VI.(1881), 533-536.

27) ‘De Sancta Hildegunde Virgine’, Hagiographi Bollandiani, *Catalogus Codicum Hagiographicorum Bibliothecae Regiae Bruxellensis* Pars I, Tomus II (1889), 92-95.

28) 수도원 입회 전의 행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Vita Hildegundis metrica」도 그가 남장을 하고 ‘요셉’으로

시기적으로 좀 더 후기에 작성된 나머지 두 사료는 작가 전지적 관점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앞의 일인칭 시점의 기록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힐데군트 임종 뒤 한 세대가 지난 1220년 경 하이스터바흐(Heisterbach) 수도원의 수사 케사리우스(Caesarius) 작성한 「*Dialogus Miraculorum*」²⁹⁾은 세 번째 전기를 직접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요셉’과 함께 수도원에서 지냈던 헤르마누스라는 청원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언급에 비추어 보아, 아마도 케사리우스는 또 다른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13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다섯 번째 사료³⁰⁾는 앞의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 풍부한 사실들을 전하고 있으나, 기적과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기 작가는 힐데군트와 같은 수도원에서 지내던 인물로, 스스로를 힐데군트의 교사라고 칭했던 그는 그녀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일화들을 전하고 있다.

중세 양피지의 희소성과 높은 생산 가격을 고려해 볼 때,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평범한 소녀에 대해서 5 종류의 전기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이 사건이 세간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반증한다. 이후 근대에 와서도 많은 연대기와 성인전에 ‘요셉’-힐데군트의 일화는 지속적으로 언급된다.³¹⁾

II-2 삶의 재구성

위의 사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근거하면, 힐데군트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녀는 라인 강변에 위치한 노이스(Neuss) 태생으로, 이곳은 쾰른 대교구에 속하던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십 여 년을 타지에서 보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막연하게 쾰른이라고 말했던 것 같다.³²⁾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심이 깊은”³³⁾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부모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으나, 케사리우스는 그녀의 아버지가 노이스의 시민이었다고 전한다.³⁴⁾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녀³⁵⁾에게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오래 전부터 성지 순례를 서약했던 아버지가 홀로 남은 딸과³⁶⁾ 하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쇠한 아버지는 티루스(*Tyrus*)에서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하인에게 어린 딸을 고향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

불리웠음을 시사하고 있다(534: *Mota querendo movet cunctos contricio Joseph*).

29) J. Strange(ed.), *Caesarii Heisterbacensis monachi ordinis cisterciensis Dialogus Miraculorum I*, (Köln-Bonn-Brüssel 1851), 47-53; Caesarius von Heisterbach에 대해서는 Brian Patrick McGuire, ‘Written Sources and Cistercian Inspiration in Caesarius of Heisterbach’, *Analecta Cisterciensia* 35(1979), 227-282.

30) D. Papenbroch, ‘Vita S. Hildegundis Virginis’, *Acta Sanctorum* April 2 (Antwerpen 1675), 780-790.

31) Hochkiss, *Clothes make the man*, 152 각주 3에 언급된 문헌 참조.

32) Vita und Miracula, 517: *Indigena sum, inquit, terre huius natus in territorio Coloniensi*. Vita Hildegundis metrica, 533: *Fovit me patrie vicina Colonia terre*. 반면에 좀 더 후기에 작성된 「*Dialogus Miraculorum*」에는 힐데군트의 고향이 쾰른에서 5 마일 정도 떨어진 노이스 시(市)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47: *In civitate Nussia, quae quinque milliibus distat a Colonia civitate magna*.

33) Vita und Miracula, 517: *patre christiano, matre pariter christiana*.

34) *Dialogus Miraculorum*, 47: *In civitate Nussia...civis quidam habitavit*.

35) *Dialogus Miraculorum*, 47: *filiam habens formosam ac dilectam, nomine Hildegundem*.

36) Vita und Miracula, 517: *infantum adhuc et parvulum nimis*. 「Vita S. Hildegundis Virginis」의 저자는 힐데군트가 순례를 떠날 당시 이미 남장을 하고 있었다고 전한다(781).

탁만 남기고 숨을 거둔다.³⁷⁾ 하지만 이 사악한 하인은 그에게 맡겨진 돈만 챙기고 밤에 몰래 도망을 치고 말았다. 구호소 침대(*in hospito et in lecto*)³⁸⁾에서 잠을 깬 어린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걸을 하면서 일 년의 시간을 보낸 뒤, 우연히 독일에서 온 지체 높은 한 순례자의 도움으로 유럽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³⁹⁾

구사일생으로 독일로 돌아온 그녀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 쾰른 대주교의 밀사 자격으로 베로나에 체류 중이었던 교황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교황과 황제가 주교 서임권 문제로 대립하면서, 황제 세력의 눈을 피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자, 잘 알려지지 않은 ‘요셉’을 밀사로 파견하려는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하지만 순례자 지팡이(*viatoris baculo, baculo peregrini*)에 주교 서한을 숨겨 알프스를 넘어가려던 차에, 낮선 일행과 합류하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만다. 이 낮선 자들이 도적 무리라는 사실을 미처 눈치 채지 못한 ‘요셉’도 이들과 함께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다.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나, ‘그’의 뒤를 쫓아온 도적 일당에게 붙잡혀 나무에 목을 매달게 되었다.⁴⁰⁾ 그러나 이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 천상의 환영으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삼 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는 인근을 지나가던 목동들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천사들의 인도하에 베로나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다.

인생의 전환점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되는데, 성스러운 인물로 추앙받고 있던 한 은수자의 추천으로 ‘요셉’은 쇠나우 수도원에 입회를 청원하였다.⁴¹⁾ 비록 미성의 목소리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나⁴²⁾, 남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때로는 채찍고행을 같이 겪으면서도 ‘그’의 생물학적 성(性)은 “기적적으로(*miraculo*)” 밝혀지지 않았다.⁴³⁾ 그러나 힘든 노동⁴⁴⁾과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으로 육신은 점차 쇠약해져 갔고⁴⁵⁾,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한 ‘그’는 수도원 원장에게 임종성사를 하였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여성임을 비밀로 하였다.⁴⁶⁾ ‘그’가 숨을 거두고(1188)⁴⁷⁾ 장례 절차

37) Vita und Miracula, 517; Vita Hildegundis metrica, 533; Dialogus Miraculorum, 47.

38) 「Vita S. Hildegundis Virginis」에 의하면 그녀는 신전 기사단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39) Vita und Miracula, 517: *Mendico...Transit annus...Theutonicis...Quidam postremo nobilium accepit me in sua, curam mei habens; cum ipso transfretavi. Romam docuit me fames et neccessitas mendicandi; Vita Hildegundis metrica, 534: Mota querendo movet cunctos contricio Joseph. In sua me tandem suscepit larga potestas, Restituens oris reducem patrie regionis; Dialogus Miraculorum, 48.*

40) Vita und Miracula, 519; Vita Hildegundis metrica, 535; Dialogus Miraculorum, 49.

41) Vita Hildegundis metrica, 533: *Venit eo ducente Deo puer, isque perorat / Ingressum; precibus simul evincente favorem / Inclusa... / Hic vir erat pro veste viri, sub veste puella; Vitae und Miracula, 516: In hanc juvenculus venit suscipi sc rogans, cui nomen Jeseeph; Dialogus Miraculorum, 50: prece et ope cuiusdam venerabilis inclusae obtinuit, ut a domino Theobaldo Abbate Sconaviae in novicium susciperetur.*

42) Dialogus Miraculorum, 50.

43) Dialogus Miraculorum, 51: *Inter viros dormivit, cum viris comedit et bibit, viris ad disciplinas dorsum suum nudavit...tamen ne sexus eius notaretur.*

44) Vita und Miracula, 517: maxime apud nos, ubi cuncta sunt fortia.

45) Vitae und Miracula, 516: *Hinc facta pusillanimis lassescere cepit et tedere et quasi velle discedere, non discipline aut laboris impatiens, sed posse latere diffidens.*

46) Vitae und Miracula, 517: *Et infirmatus est Joseph usque ad mortem. Vicinus morti priorem vocat, confitetur ei, omnia ei sua preter sexum indicat; Vita Hildegundis metrica, 533: Ecce Joseph, quod nomen ei, languore gravatus / Detegit, excepto sexu, secreta priori; Dialogus Miraculorum, 51.*

47) 힐데군트의 사망일은 서기 1188년 4월 20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해의 부활절 기간이었다. 그녀의 사망 일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료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Vita und Miracula, 520: *Siquidem in pascha huius anni res accidit, qui est annus ab incarnatione Domini MCLXXXVIII; Vita Hildegundis metrica,*

가 준비되는 동안 ‘그’가 남장을 한 여자임이 드러났고, 수사들은 그녀를 신이 보낸 처녀 (*ancilla Dei, Clara Dei*)로 공경하였다.

이후 ‘요셉’-힐데군트의 이야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갔다 (*Effertur ad laicos fama*). 케자리우스가 전기를 집필하기 몇 년 전에 쇠나우 수도원에는 이미 힐데군트를 위한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 지방으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공덕을 기렸다고 전해진다.⁴⁸⁾

III. 트랜스젠더의 가능성

힐데군트의 남장여성 행적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녀가 노이스 출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듯싶다.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시민⁴⁹⁾ 계층이라는 케자리우스의 기록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하인을 동반하고 예루살렘 순례를 감행할 정도로, 그녀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순례를 감행하게 된 구체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녀가 없었던 부부가 자식이 태어나면서 순례를 할 것이라고 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 당시 순례자들 속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여인들이 섞여 있었다.⁵¹⁾ 무엇보다도 먼 길을 떠나는 여성 순례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남장을 하였다는 사실⁵²⁾로 비추어 보아,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남자 옷을 입혔다는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이 지닌다.⁵³⁾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혼자가 된 그녀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구걸로 연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었고, 도중에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학교를 기웃 걸이며 글 동냥을 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⁵⁴⁾ 사료에서도 그녀를 남성 대명사나 혹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귀향길의 행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남장 행위는 티루스를 떠난 뒤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남장 연기에 익숙해 있었고, 비록 무사히 유럽에 돌아왔다고는 하나 어린 그녀에게 낯선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남장개복은 계속되었다.⁵⁵⁾

536; *Dialogus Miraculorum*, 52.

48) *Dialogus Miraculorum*, 52.

49) *Dialogus Miraculorum*, 47: *civis quidam*.

50) 이에 대해서는 *Vita S. Hildegundis Virginis*, 778 참조.

51) Rudolfus Glaber, *Historiarum libri* (900-1044), Paris 1886, 106: *Per idem tempus ex universo orbe tam innumerabilis multitudo cepit confluere ad Sepulcrum Salvatoris Iherosolimis quantam nullus hominum prius poterat...mulieres multe nobiles cum pauperioribus illuc perrexere.*

52) Caloline Walker Bynum, 'Men's Use of Female Symbols', Barbara Rosenwein and Lester K. Little(ed.), *Debating the Middle Ages: Issues and Readings* (Blackwell 1998), 286. 남장여성 순례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Margery Kempe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의 순례에 대해서는 김재현, 「중세기독교 순례와 도시의 발전」, 『서양중세사연구』 21(2008), 207-244쪽 참조.

53) 사료에는 힐데군트의 남장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제일 뒤 늦게 작성된 「*Vita S. Hildegundis Virginis*」(781)에서는 그녀가 성지 순례를 떠나는 순간부터 남장을 하였다고 기록한다.

54) *Vitae und Miracula*, 517: *Adjeci Studium et didici litteras, mendicans illas in scholis sicut in ostiis bucellas.*

55) 힐데군트의 남장행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과 네덜란드 지역에서 밝혀진 119개의 남장여성 사례들을 조사한 데커(R. Dekker,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in early modern Europe* (St. Martin's Press 1989))의 연구결과는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자였던 이들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이 중 20 여명은 단 몇 일만에 남장이 탈로 났으나, 20명 정도의 다른 여성들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남자로 생활하였다. 40명 이상의 여자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남성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의

켈른 대주교의 밀사로 교황에게 칙서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 행위들(3일 만의 부활, 축지법 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남장행위의 지속적인 성공을 전제한다면 서신 전달과 관련된 이야기도 단순한 기적담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숙달된 외국어 능력으로 인해서 ‘요셉’은 밀사로서 적절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스스로가 천부적인 성 정체성보다는 오랜 남장행위로 인해서 습득된 새로운 성과 일체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결과 스스로 남성으로 살기 시작했다.

힐데군트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들이 전래해 오는 ‘남장여성 수도사’ 모티프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확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구전되어 왔던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힐데군트의 입장에서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특히 오랜 객지 생활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황 (*agonibus fatigata*)에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영적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는데 말고는 그녀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다.⁵⁶⁾ 하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가족도 없고 입회금을 낼 여력도 없었던 그녀가 여성 수도 단체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녀가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이단적 공동체에 가담하거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신흥 교단에 남장을 하고서 입회하는 것뿐이었다. 그녀 스스로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 예상했기에,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남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자 했던 열망이 자신의 실체가 밝혀지는 두려움보다 더 강했을 것이다.⁵⁷⁾ 수도 공동체는 현실적으로도 홀로 버려진 어린 소녀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과 같았다. 그렇다면, 남성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생존과 구원의 대안책이었다. 이를 위해서 남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조건이었다.

다행히도 쇠나우 수도원과 관계가 있었던 한 은수자의 추천으로 ‘요셉’은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원에 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중병에 걸린 ‘그’는 1188년 4월 20일에 숨을 거두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힘든 육체노동⁵⁸⁾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도원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⁵⁹⁾ 간혹 ‘그’의 정체성이 의심받으면서,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져만 갔을 것이다.⁶⁰⁾

지적대로 119개의 남장사례는 “빙산의 일각(only the tip of the iceberg)”에 불과할 수 있다. 물질적 빈곤,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 타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 애국심 등의 이유로 시작된 근대의 남장여성 사례는 힐데군트와 잔 다르크의 경우에서처럼 중세에서도 그 양상은 비슷하였다. 하지만 중세와 근대의 일탈적 남장여성성에 대한 원인과 관련해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이들이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 정체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성 정체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힐데군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외모와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며, 그녀는 개인의 성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규정을 넘어서, 스스로의 성 정체 인식을 통해서 남장여성을 한 트랜스젠더로 살았을 수도 있다.

56) 이러한 점에서 도마복음의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는 구절은 힐데군트의 남장을 중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7) 근대의 남장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Dekker,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in early modern Europe*, 17.

58) 1142년에 건립된 쇠나우 수도원은 시토 교단의 대다수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황무지에 세워졌다. 힐데군트가 입회할 무렵에도 수도원 교회 건설과 경작지 개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순결과 가난을 서약한 수도사들의 육체적 고통은 가중 되었을 것이다. 쇠나우 수도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M. Schaab, *Die Zisterzienserabtei Schönaue im Ordenwald* (Heidelberg 1963).

59) Vita S. Hildegundis Virginis, 786. 중세의 남장 성녀들 중에서 힐데군트는 심리적 고통으로 알려진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는 그녀의 인간적 면모, 즉 역사적 실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죽기 전까지 남장소녀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오랜 고생으로 인한 신경성 식욕 부진증 등으로 생리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⁶¹⁾ 혹은 호치키스의 지적대로, 힐데군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기도와 노동 이외에는 다른 것에 일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였던 수도 교단의 엄격한 규율과 그로 인한 수도사들의 무관심 때문일지도 모른다.⁶²⁾

앵겔하르트가 힐데군트의 임종 직후 그녀의 인생역정을 기록했다는 사실 또한 그녀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힐데군트가 죽기 전에 프뤼페닝(Prüfening) 수도원 원장 에르보(Erbo, 1181년 1월 사망)에게 예화집을 헌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힐데군트 이야기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1181년 4월 20일에 힐데군트가 죽고, 그녀의 이야기가 교단 내에서 전해지면서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새로운 예화집(exempla) 제일 마지막 장에 첨부한다.⁶³⁾ 그를 오랜 동안 후원해주었던 베히터스빈켈(Wechterswinkel)의 수녀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가장 최근의 사건, 그것도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한다. 더욱이 힐데군트의 소식을 전하는 다섯 종류의 기록 모두가 그녀가 사망하고 30년 내에 작성된 것⁶⁴⁾이라는 사실 역시 그녀의 남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단순히 전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으면, 그 이전 혹은 이후에도 기록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남장성녀를 다룬 전기의 주요 주제인 성인기적, 박애와 자비 정신이 힐데군트 성녀의 이야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신의 빛”, “성모 탄생이후 최대의 기적”⁶⁵⁾으로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평범하지만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한 여인의 실존적 삶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여타의 성녀들과 비교해서 내세울만한 특성이 없으나, 신에 의지하고 삶의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인내력과 용기는 “신의 전사”, “사탄의 정복자”, “신의 운동선수”로 칭송되었던 것이다.⁶⁶⁾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일반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신의 은총으로 극복한 이유 때문에 그녀에 대한 전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힐데군트의 트랜스젠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가 구사일생으로 유럽에 돌아온 뒤에서 그녀의 남장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변복을 하고 주교 밀사로 활동하였고, 마침내 남자 수도원에 입회하여 짧지만 질곡진 삶을 마무리한다. 사료의 진위성에 대한

60) 케사리우스는 ‘요셉’이 변성기를 거치지 않았느냐는 원장의 의심 섞인 질문에 ‘그’가 변성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도 모른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한다 (Dialogus miraculorum, 50). 케사리우스는 다른 사례도 밝히고 있는데, ‘요셉’의 턱이 여자의 턱처럼 생겼다는 동료 청원자의 질문(mentum tuum...sicut mentum mulieris)에, ‘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한다 (Dialogus miraculorum, 51).

61)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던 여성 수도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던 생리중단 현상에 대해서는 C. W.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214 참조.

62)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41-42; Valerie R. Hotchkiss, ‘Disguise and Despair: The Life of Hildegund von Schönau’, Albrecht Classen (ed.), *Women as Protagonists and Poets in the German Middle Ages* (Göppingen 1991), 29-41, 여기서는 38-39 참조.

63) Bruno Griesser, ‘Engelhard von Langheim und sein Exempelbuch für die Nonnen von Wechterswinkel’, *Cistercienser-Chronik* n.s., 65-66 (1963), 55-73.

64) McGuire, ‘Written Sources and Cistercian Inspiration’, 247.

65) De Sancta Hildegunde Virgine, 92: *et post partum Virginis sacratissimae (ut aestimo) omnibus miraculis mirabiliorem, gloriosissimum virginis triumphum.*

66) ‘요셉’-힐데군트 일화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힐데군트는 수줍음을 많이 타던 연약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일화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나약한 여인이 위기 상황에서 남자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힐데군트의 ‘여성적’ 면모에 대해서는 Dialogus Miraculorum, 51: *Tunc illa quasi indignando recessit; Vita und Miracula*, 516: *pusillanimis lassescere cepit* 참조.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역사적 실존성은 쉽게 부정되기 어렵다.⁶⁷⁾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료적 서술은, 한 트랜스젠더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낸다.

힐데군트는 이분법적 성별관념을 고정화하려는 중세 사회구조의 수동적 담지자가 아니라, 기존의 성적 위계질서에 복종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한 소수자에 속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힐데군트의 남장변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인 일탈행위로 설명될 수 없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회가 규정한 도덕적 규율이 행위자에 억압적으로 부여되는 과정에서 유발된다. 따라서 그녀의 비정상적인 일탈은 개인에게 규율을 강요하는 사회적 징계의 결과이다. 그녀가 거부한 것은 사회가 여성에게 전가한 ‘의무’였으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사회로부터 일탈적 행위로 낙인찍혔다. 따라서 힐데군트의 거부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우발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힐데군트에게 부과되고, 그녀가 거부했던 규칙 자체가 남성과 교회와 같은 힘 있는 집단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힐데군트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역할 수행을 거부했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다.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통제로부터 일탈을 시도했고, 남성중심적 사회집단은 이러한 ‘규정 위반자’들을 국외인 (Outsider)으로 규정하기 시작한다.

힐데군트의 남장변복 행위는 중세 사회의 ‘일탈적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규칙과 규범을 전가하면서 이분법적 성관념을 고착화해 나가던 남성의 집단적 시선으로만 본다면, 힐데군트의 변복은 ‘사회적 일탈’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 중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떤 성적 소수자들보다도 강력하게 생물학적 성별 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트랜스(Trans)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트랜스젠더는 전통적인 성별 구분을 가로지르고(cross), 초월하려고(beyond) 한다. 자신의 신념, 입장, 내적 감성을 에워싸고 억누르는 있는 ‘몸’을 부정하고 새로운 성 정체성을 찾으려했던 힐데군트의 남장행위는 일탈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자부심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리즘(Transgenderism)의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67) V.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London/New York 1996), 49-68; A. Liebers, “Eine Frau war dieser Mann” *Die Geschichte der Hildegund von Schönau* (eFeF-Verlag 1989).